



김 용 화
(본지 편집장)

**종계는 씨앗으로 접근해야
양계업계가 발전한다.**

종계(種鷄)는 두말할 필요 없이 병아리를 생산하는 씨종자 닭이다. 그런데 최근 종계를 두고 업계는 물론 학계, 또는 정부에서조차 종계가 무엇이며, 실용계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해석들을 내리지 않고 있어 육계업계와 종계업계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사육되는 종계는 육용계가 약 400만수, 산란용이 약 60여만수에 이르고 있는데 산란실용계 암컷과 육용종계 수컷에서

생산된 일명 백세미까지 고려하면 실제 사육되는 종계는 이 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계통이 확실한 종계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백세미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산량 파악은 물론 방역, 또는 위생관리나 생산 전 닭으로써 갖추어야 할 경제능력에 대한 검정조차 받지 않고 병아리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어 문제점 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해득실에 얽매어 경제성이 우선하느니, 수요가 있으면 생산은 당연하다는 논리에 집착하여 종계 관리 규정이 있으나 마나 무시당하고 이해 당사자들간에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무책임한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

삼계탕의 경우 맛 때문에 백세미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전용 육용계 병아리 값이

하락하면 백세미 생산이 감소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평소에는 실용계로 활용하다가 병아리 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 실용계를 종계로 둔갑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볼 때 지극히 비상식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해석밖에 내릴 수가 없는 일임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년의 경우 육용종계가 부족하여 병아리를 입추하면 복 전후 육계가격은 보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측이 크게 빗나가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백세미가 생산에 가담을 하여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육계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한결 같은 생각이다. 이 시점에서 제안을 한가지 한다면 백세미를 자가사육이 아닌 판매용으로 생산할 시 종계에 준하는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어떻게 지침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범 업계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통일된 안으로 관리하여 허술한 병아리가 생산되어 공급되지 않도록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절기 난가유지
유통구조 개선으로 해결해야**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계란을 생산하여 소비자나 가공업체에 공급한들 마다 할 사람이 있겠는가!,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채란업계에서 또 다시 반복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IMF 이후에도 발빠른 생산조절을 통한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왔다고 대외적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인

위적인 생산조절이었다기보다 외상 사료비 조 기 회수 내지 공급 중단이라는 강압적인 극약 처방 때문에 이루어졌던 결과에 견주어 볼 때 채란업계는 정말로 자율적인 생산조절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

시장경제 논리상 생산량이 많아지면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한 출하가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통계를 인용하여 채란업계의 불황을 예고하여 왔고, 또한 실제로 생산 증가요인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으나 채란인 대다수는 이를 외면하여 왔다. 그 결과 소비가 둔화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난가는 사료비에다 기초 생산비만을 건질 수 있는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어 규모를 늘린 농가들은 출하를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매우 커지고 있어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채란인들이 계란을 많이 생산한 것은 만고의 진리인 듯 싶다. 그러나 소비자가 비쌀 때에 비해 별로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계란 유통에 있어 병목현상이 있다는 증거라고 보여진다.

여름철 비수기 난가 약세는 늘 있었다는 말로 치부하기는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농장에서 50원대에 출하되는 계란이 수퍼에서 100원대에 팔리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축산물은 생산량이 많으면 판매가가 낮아지는 것이 보편적인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출하가와 판매가는 차이가 없는 것은 유통의 불합리 때문으로 보인다. 생산자가 조합원이 되어 운영하는 집하장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표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집하장이 왜 안 되는가 생각을 해야 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익이 적어서라고 쉽게 대답을 할 것으로 추측이 된다. 계란이 모자라고 다운 폭이 적을 때의 이야기이다. 계란이 적체현상을 보이면 집하장에 계란이 넘쳐나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계란유통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다.

공동집하장은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만든 것이다. 잘 될 때 기금을 모아 경기가 나쁠 때 보전한다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성공이 가능하다. 이익만 생각하면 항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전이 없는 것이다. 정착이 될 때까지 곳곳에 집하장을 만들어 계통 출하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해야 유통이 개선된다. 유통이 정착되어야 연동제가 가능해져 다소나마 농가의 손실이 줄어들 수 있다.

**닭고기 수입 증가 대처
자신감으로 패배의식 극복해야**

우리나라는 닭고기의 수입을 1995년부터 부분적으로 허용해 오다가 1997년 7월1일을 기해 전면 개방하였다. 수입개방을 앞두고 육계업계는 급속한 기반붕괴를 우려하여 생산비 절감이 최우선 과제라 인식하고 계열화 사업이다, 시설자동화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수입이 개방된 작금에 와서 볼 때 무엇보다 제대로 경쟁력이 갖추어진 것이 없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부터 수입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다.

수입이 개방된 직후 국내 육계가격은 나쁜

편이었다. 이 결과 수입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내산업은 도산에 직면하여 앞 뒤 가릴 경황이 아니어서 허우적대는 사이에 우리 양계업계는 생산물이 감소하여 어찌 보면 호황의 분위기에 휩싸여 도래할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몇 년 전부터 종계업의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병아리가 부족한 이유로 육계업은 호황을 유지하는 듯 비춰졌다. 이것이 악순환의 빌미였고, 대책수립의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병아리도 풀리고,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육계가격은 과거와 같이 폭등하는 일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견제세력이 등장한 셈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수입 닭고기에 대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임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문제는 자신감이다. 종계부터 사료, 가공에 이르기까지 생산비를 최대한 낮추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안 되는 일도 하겠다는 신념만 가진다면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가능성이 있는 일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생각이다. 수입이 많이 되어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보다는 신선육이나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공급을 한다면 얼마든지 소비자에게 신뢰와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차체에 하였으면 한다. 어쨌든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존속이 가능하지 그렇지 못하면 생산 기반은 언제 무너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닭고기는 수입량이 계속 증가할 여지를 남긴 셈이다. 소비자에게 맡겨서 품질로 경쟁을 하는 도리 외에는 방도가 없다. 이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양계**